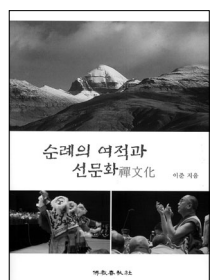


老 교수가 만난 국내외 불교 餘滴... 역사와 문화 음미

(여적)

순례의 여적과 선문화

이준 지음 | 불교춘추사 펴냄 |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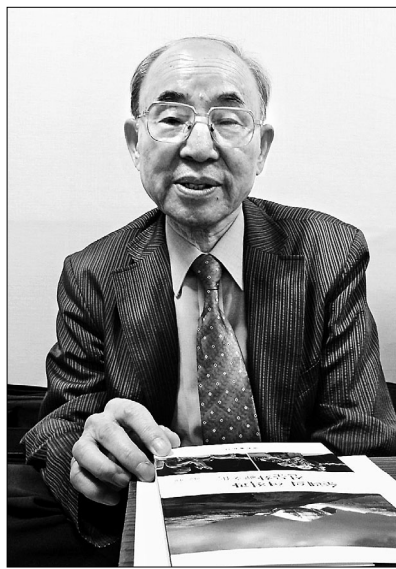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 교수로 공과대학장을 지낸 저자는 40대에 들어 불교에 입문해 불전사통신강원과 조계종교육원 서울불교전문강당에서 수학했으며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상임고문이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했고 현재는 역시 중앙신도회 인재원 상임고문으로 있다. 저자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사진)의 불교적 신행은 2002년 대학서정년퇴임한 후 더욱더 활발해졌다. <불교춘추> <불교평론> <선문화> <차의세계> 등 유수의 불교 잡지들에 많은 글을 써왔다. 저자의 기억으로는 16년 동안 67편의 글을 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그 중 27편을 선정해 펴낸 책이 바로 <순례의 여적과 선문화>이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했는데 그 첫 번째는 '순례의 여적'의 장으로 9편의 글이 실렸고, 그 다음은 '인도와 티베트 불교' 장으로 5편의 글이 게재됐다. 이

어 '선문화'를 빛낸 잊을 수 없는 인물' 편에서는 6편의 글, 마지막 '선문화 속의 과학'의 장에는 7편의 글이 들어있다. 책에 실린 글중 반 이상은 불교성지 또는 불교 유적지 순례와 관련 내용이지만 순례를 통한 종교적 수행 기록이나 신변잡기를 곁한 개인적 기행문은 아니다. 순례지역의 종교색이 짙을 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가 서려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역사나 이야기를 찾고자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많은 글의 주제를 이룬다.

저자는 중국서는 주로 불교유적지를 찾았고, 인도서는 불교유적지 외에도 힌두교 사원과 무굴제국의 유적지도 방문했다. 이들 역사속에서 찬란히 꽃핀 문화와 그들의 자부심을 살펴보고 음미한 흔적들이 글로 옮겨졌다.

이외에도 저자는 "백제와 신라에 뿌리를 둔 나라(奈良)의 도다이(東大寺)" "천상에 오르는 카일라스 봉" "천상의 물 마나사로 외르 호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일한 불교사원, 그 고난의 80년" "라다크에 피어 있는 불교예술의 꽃 알치 사원" "하와이에 티베트 불교의 바람을 일으킨 까구 켄첸 램" "유목의 나라 몽골의 불교, 그 영광과 고난" "원광 법사의 수행처였던 삼기산을 찾아서" "가야차(茶)의 전래에 대한 소고"와 같은 의미심장한 내용 9편의 글들을 실었다.



40대들어 불교에 입문해 수학 칼라차크라 행사 세번이나 참가 선문화 빛낸 국내외 인물도 소개

두 번째 '인도와 티베트 불교' 편에서는 총 5편의 글이 실려있다. 저자는 1989년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인도불교 유적지 순례에 동참해 처음으로 인도에 갔다. 그때 저자는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돼 이후

여섯차례 더 인도를 방문했다. 그러는 사이에 티베트 불교에도 또한 매료돼 달라이라마가 주관하는 칼라차크라 입문 행사에 세 번이나 참가했다. 앞의 세번이 저자가 2001년 1월 인도 보드가야 칼라차크라 입문행사, 2002년 10월 오스트리아 그라스시의 칼라차크라 입문행사 그리고 2006년 1월 용수보살의 고향 근처인 남인도 아마라바티에서 있던 칼라차크라 입문행사에 직접 참가하고 쓴 글들이다. 이 칼럼들은 제 14대 달라이라마의 참 모습과 티베트 밀교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글들이다.

또한 네 번째는 "여신 강가와 인도인의 물수행"이고 다섯 번째는 "전문성왕 아쇼카대왕"이다. 앞의 글에서는 여신 강가의 연원과 범속가적인 행사로 진행된 힌두교 최고의 목욕수행인 쿰브하멜라(Kumbha Mela) 등 주요 물수행을 소개했다. 이 장의 끝글은 인도의 역대 왕들 중 가장 훌륭한 전문성왕으로 추앙되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대왕의 생애와 불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상세히 고찰했다.

여행기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장인 '선문화'를 빛낸 잊을 수 없는 인물' 편에는 저자가 평소 존경하던 인물들이 소개돼 있다. 그중 세계적 대가인 티베트의 음악가 나왕 케츨(Nawang Khechog)은 '2002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정식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에 와서 공식문화행사인 "전통과 현대 예술제"에 참가한 인물이다. 그 당시 저자가 그를 인터뷰하고 월간 <선문화>에 실은 글이 이 장의 여섯 번째 "영혼의 소리를 연주하는 음악가 나왕 케츨"이다.

저자는 책에서 나왕케츨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왕은 독학으로 이룬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그에게 스승이 누구인가 물었더니 스승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작곡법은 어떻게 공부 했는가 다시 물었더니 작곡법을 공부한 일이 없다고 한다. 그는 앉거나 서서 피리만 잡으면 자발적으로 입이 바람을 알맞게 불어넣도록 숨이 골라지고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여 음악이 이루어져서 그 소리가 허공을 맴돌아 흘러간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연주한 녹음을 듣거나 녹화된 화면을 보면 스스로도 참으로 놀라다는 것이다. 어디서 저런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었는지 자기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밀라레파 성자가 십만 개의 계승과 노래를 동시에 짓고 부른 것이나, 1820년대에 있던 링 케살이라는 이야기꾼(story teller)이 글자 한자 쓸 줄 모르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면서도 매우 문학적인 이야기와 고매한 시를 술술 구술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티베트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참으로 이는 재능의 발로라기 보다는 영혼의 교감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영

혼의 소리를 내는 음악가들인 듯 하다." 이외에도 이 장에서는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중국의 선사인 일행 스님" "용거산 도웅선사의 법등을 전한 해동 사무원대사" "의천대각국사와 불인요원 선사" "운제당 이영무 스님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아름다운 나들이를 마친 법정 스님" 등의 업적과 생애가 소개돼 있다.

마지막 '선문화 속의 과학' 편에서 저자는 "불교적 실상과 현대 과학 간의 문화적 교감"이란 글을 통해 불교와 과학간 역사적 교감의 발자취를 고찰한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서구의 석학인 과학자들이 티베트 불교와의 대화에 매우 경도되는 현상에 대해 저자는 피력한다.

"서구의 과학계에 위대한 성취를 가져오기 위해 티베트 불교로부터 매우 정교한 사상과 철학적 통찰력을 도입함으로써 현재까지 회피한 현대물리학의 난해한 과제들에 광명을 불어넣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우리는 최종적 해결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 문제들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접근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자비에 대한 동서 문화간 인식의 차" "중생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똘-똘 명상과 현대 의학의 만남" 등이 티베트 불교와 현대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주필 기자 kimj4217@hyunbul.com

새로나온 책

효봉선사 연구 논문집

효봉 선사의 불교사상 연구

진관 지음 | 한강 펴냄 | 2만 5천원

효봉(이찬영, 1888~1966) 선사의 탄생과 그가 활동하였던 전 생애를 통해 그가 실현하고자 하였던 역사를 조명하고 그가 불교계에 입문하여 선불교 사상을 실천하였던 불교 사상을 불교사학적인 입장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이찬영은 통합 조계종의 종정을 역임하였지만 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 그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책은 바로 효봉 선사에 대한 연구논문집이다. 효봉 선사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근대사를 성찰 할 수 있고, 조계종의 역사도 고찰할 수 있다.

저자인 진관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종도로서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신 선승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효봉 선사의 열반주기에 맞춰 발간하려던 것이 미뤄졌다. 이번 논문은 동방불교대학원 박사논문으로 자료 수집 등 준비 기간만 3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붓다선

수완나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 5천원

"붓다께서는 어떻게 수행하여 붓다가 되었으며 그 수행법은 어디에 전하고 있는가?" 여래의 수행 '붓다선'을 찾아낸 수완나 광월 선사께서, '어둠 속에 있는 보배는 등불 없이 볼 수 없듯이 성스러운 진리라도 이를 말하는 이가 없으면 전할 수 없다'는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선사께서 얻은 작은 지혜의 핵심을 남김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쉽고 간명해 누구나 한 번만 읽어 보면 곧바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책에 실려진 내용은 가볍게 쓰인 것이 아니고, 또 스님이 입의로 창안한 그런 것이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인 경전에 근거해 현대인들이 읽기 쉽고 적당하게 체계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의 말씀은 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자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쓰여야 한다는 전형을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 1장 '붓다가 전하는 가르침의 근본', 제 2장 '붓다선의 핵심', 제 3장 '붓다선 수행'은 한글, 한문, 영문으로 번역해 놓았으므로 외국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관음신앙 총 망라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효림 펴냄 | 7천원

약 30여년 전 저자는 <불교사상>이라는 잡지에 실은 <관음신앙>이라는 제목의 글로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이후 작은 원력을 세웠다.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불교신앙에 대한 책을 써보리라"라고, 그 첫 결실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이 1997년에 세상에 나왔고,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후 저자는 새 원을 세우 20년만에 <관음신앙, 관음기도법>을 다시 발간했다. 지난 20년 동안 저자가 새로 익힌 관세음보살님과 관음신앙의 다양한 내용들, 곧 7관음·33관음의 내용과 기도인들이 늘 새겨야 할 일심칭념 일념염불법,독경과 사경 기도법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참된 기도성취를 위해선 관세음보살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정토종의 종지와 역사는?

정토종 개론

정종법사 지음 | 정전 스님 번역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 3천원

칭명명불을 중심으로 한 정토종의 종지와 역사, 수행법을 총망라한 개설서이다. 이 책은 선도대사의 종의(宗義)를 기준으로 삼고, 용수와 천천, 담란, 도작 등 조사들의 교의를 꿰뚫어 특별히 정토종의 교의를 정립하는 근본에 힘썼다. 또한 힘써 정토종교의 전모를 드러내어 정업행자들에게 전체적인 인식의 제공을 도모했다. 보다 자세하게 해석할 겨를이 없으므로 초학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부분에 주석을 달고 아울러 문헌의 출처를 밝혀두었다.

이 책의 장과 절은 목록과 같다. 정식 논문은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 1장은 총괄적인 서술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인 서술이다. 2.3.4장은 교리의 부분에 해당하고, 5.6.7장은 실천의 부분에 해당하며, 제9장은 중독의 부분에 해당한다. 제8장은 앞의 문장을 받아서 뒷문장을 잇는 역할을 한다. '본원'은 교문에 관한 세장(2.3.4장)으로, '칭명'은 행로의 세 장(5.6.7장)을 잇는데, '본원인 칭명'으로 '법부가 보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 10장에서는 요점을 총결한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 조작 upgr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X 세로5.7cm X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동합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저작권협약)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4. 발바 꿰우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기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성년의 기도
9. 장영 염불
10. 장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물을 쓸 때는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을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고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버리면
19. 나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전인 1
22. 광명전인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이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한계
30. 법성계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진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찬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발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서경
43. 산화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길로법을 전하차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약장
53. 관세음보살 2약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곁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로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정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허말라이를 넣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제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에 일어나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동합]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